



# 즐겁게 울리는 전라도의 천년

## 전북도립국악원 제주서 '천년의 울림락'

제주도립무용단 출연  
전북과 화합위한 무대로  
아리랑·신 뱃놀이 등 선배

전북의 국악관현악과 무용, 타악 공연이 제주를 수놓는다. 전북도립국악원은 14일 제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0여명의 예술단원들이 출연하는 '천년의 울림락'을 공연한다. '전라도 정도 천년' 및 '전북-제주 상생 협약'을 기념하는 이날 무대는 양도를 대표하는 도립예술단의 교류공연으로,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창극단·무용단이 출연해 전통예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제주 도민

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열릴 10일 전북공연엔 제주도립무용단이 출연해 전통예술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양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국악실내악을 비롯한 국악가요, 민요, 무용, 드라마 도깨비 OST, 제주 토속민요연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국악실내악 '아리랑'을 서곡으로, 민요 '뱃노래'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편곡한 '신 뱃놀이'를 들려준다. 각 악기들의 즉흥연주와 동·서양 타악기들의 역동적인 리듬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독수공방, 동해바다, 각시풀' '너영 나영' 무대는 전북도와 제주도 대표 민요를 선정, 국악실내악 반주에 남도민요의 구성

진 가락과 제주민요의 아귀자기한 사랑노래를 곁들여 흥취를 진한다. 이외에도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도깨비' OST곡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국악가요 '소금장수, 배뽕워라, 신사랑가'를 들려줄 예정이다. 장고가락 속에 담겨진 흥의 매력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풀어낼 장고춤과 풍물·소리·춤 '노닐며 솟구치며'도 전통공연의 향기를 더한다. 노닐며 솟구치며는 지역마다 발달한 풍물과 춤, 놀이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구성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흥과 신명을 돋운다. 국악원 관계자는 "대규모 출연진이 펼치는 역동적인 가·무·악의 향연은 전통예술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지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 익산·남원 공용터미널,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익산 및 남원 공용터미널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일 도와 사업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익산과 남원 공용버스터미널이 문화터미널 조성 대상지로 선정돼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을 통한 전북 관광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이번 선정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와 '제99회 익산 전국제전' 등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터미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방문의 첫 관문인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일상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그해 10월 고창 문화터미널의 개소를 통해 터미널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성공적으로 알렸으며, 지난 2월 개소한 무주안성 문화터미널 또한 주민들과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병천 대표는 "본 사업에서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터미널의 본래 기능 외에도 관광객과 주민들이 터미널을 오가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문화터미널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무형유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국립무형유산원, 4월부터 11월까지 진로탐색캠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은 미래 무형유산 지킴이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로서의 꿈과 재능을 찾아볼 수 있는 '2018 무형유산 진로탐색캠프'를 진행한다. '무형유산 진로탐색캠프'는 초·중·고(4~6학년)와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펼쳐지는 캠프형 체험교육. 무형유산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예술 분야 진로 및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진로탐색 주요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예능 종목 체험, 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한옥마을·생태체험관 탐방, 재미와 유익함을 갖춘 무형유산 기획 프

그램, 국립무형유산원의 문화공연과 상설·기획 전시를 관람하는 전시·공연 관람, 팀별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프로그램 중, 무형유산 기획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 전문가와 협업해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은 무형유산원의 시설을 이용해 설치한 과제를 조별로 풀어본다. '무형유산을 가져라'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낱말 퍼즐을 맞추는 '무형유산가로세로' 등 무형유산의 지식 함양은 물론 심성과 공동체 의식도 다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교육부가 운영하는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에서 하면 된다. 학교별로 단체접수(회당 30~40명 내외)만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나주에 스민 이야기·봄의 풍경... 마당, 3월 백제기행

(사)마당의 3월 백제기행은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함께 역사 속 이야기를 찾아 나주로 떠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주에 스민 이야기와 봄의 풍경을 만나 본다. 오는 17일 출발하는 기행은 잃어버린 나주 고대사의 이야기 '나주 마한 고분군'과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읍성인 '나주읍성' 천년복사골인 만큼 위세가 막강했던 '나주목 관아', 그리고 비밀을 띄운 불 한바가지 이야기로 유명한 '완사천'과 전원 속에 자리 잡은 국립 나주박물관을 찾아가는 '나주 마한 고분군'은 거대한 봉분을 한 고총 고분으로 반남면에 나주 신촌리 고분군, 나주 대안리 고분군, 나주 덕산리 고분군 등의 웅관고분군이 있다. 석실고분으로는 다시 면에 북악리 고분군, 세지면의 나주 송제리

고분, 반남면에 나주 흥덕리 석실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영산강 하류지역에 많은 고분들이 산재해 있다. '평지 읍성인 '나주읍성'은 고려시대 왜구방어를 위해 쌓은 토성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4년에 돌을 이용한 석축성으로 고쳐 쌓았으며, 1456년에 지금의 규모로 크게 확장했다. 나주읍성은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읍성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주목 관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되었지만 객사, 동헌, 읍성, 향교 등이 남아 있다. 여러 건물들은 비교적 옛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읍치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다. 함께 둘러보는 '완사천'은 물 걷는 처녀와



나그네가 주제가 되는 전설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곳으로 고려 태조 왕건과 관계된 전설로 유명하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며 호남지역 발굴 매장 문화재에 대한 수장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됐다. 기행 참가자는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